

박근혜 시대

광주전남 현안·공약 점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해들어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이 지역민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고는 하나, 인수위의

‘국정로드맵’ 작성과정에서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역 숙원 사업의 문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꼭 실천하고 지켜져야 할 지역공약 및 현안 사업을 점검해 본다.

영광원전 5호기 재가동

위조부품 전량 교체…1~2월 전력수급 소통

지난해 11월 드러난 원전부품 품질 검증서 위조사건으로 가동이 정지됐던 영광 원전 5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승인을 얻어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는 1일 “지난달 31일 ‘제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영광 원전 5호기에 대해 품질서류 위조 부품을 전량 교체됐고 관련설비 성능과 주요설비 안전성이 종합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영광 지역 8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에 그간의 조사 내용 등을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된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은 총 561개 품목 1만3794개였으며 원전에 설치된 것은 341개 품목 6494개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품질검증서 위조부품 중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5197개 가운데 93.4%인 4848개가 교체됐다. 시험성

적서 위조 부품은 61개 전체를 교체 완료했다. 가동이 중지된 영광 5·6호기에 납품된 부품은 총 105개 품목 6606개였으며 실제로 설치된 것은 465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품질서류가 위조된 안전등급 부품이 모두 검증품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확인했으며 종합 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제작·납품한 안전등급 부품의 시험성적서가 위조되었는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광 원전 5호기는 100만kW급으로 재가동에 들어가면 이번 주 중반경 100% 전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2월 전력수급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광 원전 6호기는 민관합동조사가 마무리됐으나 원안위의 정기검사관련 절차를 거친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통령직인수위 9개 분과위 설치

이르면 주내 인수위원 임명 정식 출범

대통령직인수위에 9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해 첫 주 인수위원 임명을 마치고 인수위를 출범시킨다는 일정 하에 인사검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난 31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의 조직·기구 구성안을 발표했다. 인수위에 설치된 9개 분과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위원회이다. 경제민주화를 다룰 별도의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다. 인수위에는 앞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 구상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창중 당선인 수석대변인은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선인 대변인인 박선규·조윤선 대변인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박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인수위 행정실장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새누리당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임명됐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1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와 당 신년인사회 참석 후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인선에 집중했다. 당내에서는 20여명의 인수위원 명단이 박 당선인에게 제출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 신 대 학 교
2013년도 제21기
보육교사 교육원 학생모집
원서접수
~2013년 1월11일(금)
입학문의 062)605-1112
062)605-1023

문화전당 채울 콘텐츠 예산 2500억부터 챙겨라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올 71억원 배정에 그쳐

U대회 개최전 개관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창조적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건립과 함께 그 안을 채울 콘텐츠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문화전당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육성 ▲문화교류 도시역량 강화 등 4대 역점 과제에 총사업비 5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가운데 문화전당은 이 사업의 상징이자 핵심으로, 지난 2004년 이후 5476억원이 투입돼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국비에 1100억원이 반영된 만큼 2014년말 완공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화전당을 채울 콘텐츠가 전무하다는 게 큰 문제다. 개관을 해도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3년도 국비로 문화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1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일대에 신축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정률이 50%에 육박하면서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총 면적 17만3540㎡ 규모의 문화전당에는 창조원과 정보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원이 들어선다. 2014년 말 완공 예정. <헬기조종=광주소방항공대 박창순 기장, 문연석 부기장>

사업 예산 250억원을 요청했으나, 겨우 71억원을 배정받는 데 그쳤다.

추진단은 올해부터 해외전시관 작품 섭외를 비롯한 문화예술전시감독 등 전문가 집단구성, 각종 콘텐츠 개발 연구, 공연·전시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올스톱’이 불가피한 상태다.

광주시는 늦어도 오는 2015년 7월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전까지는 개관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 여건에선 불가능하다고 추진단의 입장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이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박 당선인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는 한 성사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다행히 박 당선인이 아시아문화사

도 사업 콘텐츠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해 지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 활성화와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이끌 문화인재 육성을 위한 국립 광주문화예술대학 설립과 국가문화예술공원, 국립 아시아 미술

관, 국제 문화예술 창작 특구 조성 등을 박 당선인측에 건의한 상태다.

광주시 임영일 문화수도 정책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광주라는 특정지역의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대규모 문화사업”이라면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차질없는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조5181억 전남도 6조2943억 국비 확보 342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광주시의 2013년도 국비 지원이 역대 최대액인 2조5181억원으로 결정됐고, 전남도는 6조294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관련기사 2·4면>

광주시의 국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 125건, 2조4686억원보다 23건, 495억원이 추가된 총 136건, 2조518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2년 국비 확보액 145건, 2조1381억원 보다 3800억원(17.7%) 늘어난 규모다.

신규사업 예산은 ▲동광주~광산

IC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분원 설립비 10억원 ▲무등산 국립공원 사업비 100억원 ▲아시아문화산업투자사업활성화 115억원 등 30건에 이른다.

계속사업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100억원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지원 603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158억원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사업 육성사업 지원 140억원 ▲연구·생산복합형 광

주 R&D특구 육성 100억원 ▲3D융합산업 육성사업 90억원 ▲광주 이노비즈센터 건립 78억원 ▲CT 연구원 기반구축 50억원 등이 확보됐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을 비롯한 7대 대선공약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 국비 지원은 지난해(7조1940억원)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올해 대규모 정책국책 사업이 없는 점과 새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무상보

육 및 반값 등록금, 일자리 예산 증액 재원을 감안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 사업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서 올해 전체 국비 지원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비는 지난해(50억 원)보다 2배인 100억원을 확보해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대회 운영 적자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 마련했다.

국비 지원으로 SOC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비 지원에는 압해~압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710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740억원)사업 등이 반영돼 남해안 관광지 활성화와 섬지역 교통망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국회는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세계의 새해를 삼성 갤럭시가 맞이합니다

서울에 사는 가영이는 7시 47분에 첫 해를 보았습니다. 파리의 에릭은 8시간 뒤에, 뉴욕의 마이클은 14시간 뒤에, 삼성 갤럭시는 오늘 하루 이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더 많은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할 세계 1위 삼성 갤럭시가 전합니다. Happy Creative Year, Happy New Year!

Samsung GALAXY

상징전자 SAMSUNG